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3 No. 6, pp. 15-21, June 2018
www.ksci.re.kr
https://doi.org/10.9708/jksci.2018.23.06.015

Designing the Content-Based Korean Instructional Model Using the Flipped Learning

Jung-Hyun M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 Content-based Korean Class model using Flipped learning for foreign students. The class model that presents on this paper will lead the language learning through content learning, also it will be enable the student more active and to have an initiative in the class. Prior to designing a Content-based Korean Class model using Flipped learning, the concepts and educational significance and characteristics of flip learning were reviewed through previous studies. Then, It emphasizes the necessity of teaching method adapting Flipped learning to Content-based teaching metho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t also suggests standards and principles of composition in Contents-based teaching method using Flipped learning. After designing the instructional model based on the suggested standards and principles, it presents a course of instruction about how learning methods, contents and activities should be done step by step. The Content-based Korean class model using the Flipped learning will be an alternative approach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eacher-centered teaching methods and lecture-teaching methods which are the dominant of present classroom environment.

▸Keyword: Flipped learning, Instruction model, Foreign student, Content-based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I. Introduction

지식정보사회화가 되면서 일방향적인 교육 방법을 탈피하기 위한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정보 통신 테크놀로지의 도움을 받은 디지털 세대인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는 플립러닝이 대두되고 있다. 플립러닝은 학생들이 교과 내용을 교실 밖에서 온라인을 통해 미리 학습하고, 실제 교실 수업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심화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업 방식이다. 이는 기존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다량의 지식을 학습하기 위해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고 학습자들은 수동적으로 지식을 수용하게 되어 학생들의 연습 활동이나 심화된 학습에 할애되는 시간이 적다는 단점을 보완해 준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플립러닝은 언어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연습 활동이나 응용 활동이 적극 요구된다는 점에서 적용될 가치가 있다.

이러한 교육적 가치로 인하여 플립러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플립러닝의 중요성과 개념 및 교육적 의의에 대한 전반적인 요소에 대해 고찰한 이종연, 박상훈, 강혜진, 박성열(2014), 플립러닝을 활용한 수업모형 설계를 한 임지영(2015), 플립러닝 효과에 대한 검증 연구인 김민경, 신창원(2016)의 연구가 있었으며, 플립러닝 적용 사례 연구로는 정동섭(2015)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에서는 플립러닝을 활용하여 대학 글쓰기 교육의 모형을 개발하여 수업에 적용한 사례 연구인 엄성원(2016), 이경애(2017)가 있다[1-6].

먼저 교육공학 논문인 이종연, 박상훈, 강혜진, 박성열(2014) 에서는 최근 교육현장에서 강의 중심 수업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 개개인의 수준과 적성을 고려한 교수법의 관심도

• First Author: Jung-Hyun Mun, Corresponding Author: Jung-Hyun Mun
*Jung-hyun Mun (hyun@pcu.ac.kr), Division of Future Capability Education, Pai chai University
• Received: 2018. 04. 23, Revised: 2018. 05. 15, Accepted: 2018. 05. 28.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Pai Chai University in 2018.

를 언급하며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플립러닝의 개념과 교육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해 고찰하면서 플립러닝에 대한 교사의 이해 및 수업에서의 실행을 높이기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1].

임지영(2015)에서는 교수자의 강의식 수업이 학습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중국어 어법 수업의 수업모형과 지도안을 설계하였는데 실제 수업을 통한 실험연구가 아닌 방안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2].

김민경, 신창원(2016)에서는 영어교육에서의 연구로 플립러닝을 거꾸로 교실수업이라고 칭하며 중학교 영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와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대상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거꾸로 교실 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누어 수업의 효과성을 보았는데 거꾸로 수업이 학업성취도에는 효과성이 없었으나 영어읽기의 대화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의적 영역인 흥미도, 목적의식, 성취동기 등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는 것을 밝혔다[3].

정동섭(2015)에서는 교양 스페인어 수업의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수업 모형 제안하였는데 언어 수업에서 교실 수업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스페인어 수업에서 플립러닝 수업 모형을 개발하였다. 수업모형 개발 시 Hamdan, McKnight, McKnight & Arfstrom이 언급한 플립러닝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ADDIE 모형을 참고로 하여 수업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개발 후 실제 수업에서 적용한 결과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4].

다음으로 한국어 교육에서의 플립러닝 연구를 살펴보면 글쓰기 수업에서 적용한 사례가 다수였다.

먼저 엄성원(2016)에서는 플립러닝의 개념과 수업 방식을 살펴 본 후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구체적인 수업 모형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수업 진행에서 계획성과 효율성 도모,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비롯하여 사고와 소통의 폭을 확장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외 플립러닝의 문제점으로는 주입식 교육 방식에 적응된 학습자의 플립러닝 수업 방식에 대한 수용과 선호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역효과에 대한 부분도 우려하였다[5].

마지막으로 이경애(2017)에서는 플립러닝을 적용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글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글쓰기 고급 과정 반의 외국인 유학생이었으며 플립러닝을 적용한 반과 적용하지 않은 반으로 나누어 4주간 실험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의 학습 성취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플립러닝을 적용한 반이 글쓰기 능력이 더욱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플립러닝을 적용하지 않은 반에 비하여 명확하고 논리적인 글을 구성하는 능력이 더욱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 결과도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유학생의 적극적 수업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6].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플립러닝이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연구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한국어 교육에서도 수업 모형 제시와 적용 사례까지 연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플립러닝이 대학 수업의 교과목에 적용되기 이전에 유학생들의 실제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교수법과 함께 접목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국내 대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 강의 시간 동안 언어 학습은 물론 전공이나 교양 지식 학습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내용중심 교수법으로 제안되는데, 언어적 요소는 내용 이해에 집중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실제적 맥락 안에서 노출되며, 학습자들은 자유롭게 토론,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등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언어의 구성 요소가 자연스럽게 학습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내용중심 교수법은 유학생들마다 형성되어 있는 스키마가 다르고 한국어 능력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학습자가 목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심화 활동까지 연계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플립러닝을 유학생 교과목에 적용한다면,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에게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는 동시에 교육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플립러닝을 활용한 내용중심한국어 수업 모형을 설계할 것이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대학에서 일련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일정 수준의 학습 성취도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II.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 of The Flipped Learning

‘플립러닝’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사전에 학습을 진행하고 본 학습에서 활동중심의 수업을 하는 혼합형 교육환경으로 정의된다[7]. 이정연(2016)에서는 플립러닝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 대한 정리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8].

Table 1. The concept of flip learning

Jong-Yeon Lee, Sang Hoon Park, Hae-Jin Kang, Sung-Youl Park(2014)	Students can learn the main contents of the class during the lesson by video through the Internet or in a private space, and conduct various activities such as discussion, practice, and experiment with the teacher or fellow students during class.
Bin Choi, Eun Gyung Kim(2015)	The learner acquires knowledge and information through self-directed learning before class. In classroom class, it is based on collaborative work with co-workers and peer learners.

플립러닝은 2007년 Bergmann,J와 Sams,A에 의해 최초로 도입된 교육 방법으로 비디오로 녹화된 강의 내용을 학습자들이 숙제로써 미리 학습한 뒤, 교실에서 비디오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한 복잡한 과제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교실에서 교수자의 강의를 통해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고 연습이나 활동, 실험 등을 한 뒤, 집에서 학습자들이 배운 내용을 응용한 숙제를 하게 된다. 이런 수업 방식은 교수자의 강의와 학습자들의 학습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참여하는 연습이나 활동 등을 위한 시간이 상당한 제한을 받는다. 반면에 플립러닝 수업에서는 집에서 교수자의 강의를 숙제로써 미리 학습하므로 교실 수업에서는 연습이나 활동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할애하고, 기존 전통적인 수업에서 숙제로 했던 심화 적용까지 교실 수업에서 모두 끝낼 수 있게 된다.

이를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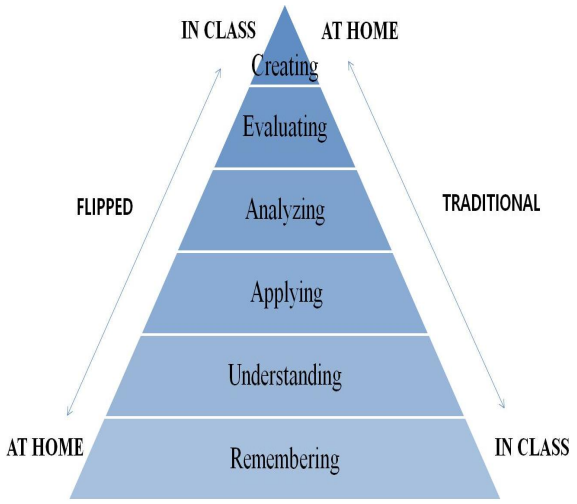

Fig. 1.The difference between lecture and flip learning system in cognitive classification (Honeycutt, 2014)

즉, 플립러닝의 특징은 교수 중심의 수업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기존 방식의 수업보다 더욱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도 활발히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이며, 학습자 스스로 사전 학습을 통해 기억과 이해가 이루어지고, 다음 단계인 교실에서의 수업을 통해 응용과 분석, 나아가 평가와 창조까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능동적이 자세로 학습을 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플립러닝 수업은 '수업 전(Pre-class)', '수업 중(In-class)', '수업 후(After-class)'의 단계로 구성된다. '수업 전' 단계는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며, 교수자에 의해 제공된 수업 자료를 통해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사전 학습을 하는 단계이다. 주로 교과 내용의 강의가 담긴 비디오나 프레젠테이션, 학습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습하게 된다. 이때 학습자는 자기 주도적으로 요약 노트를 작성하거나 학습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질문들을 수집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자신들의 학습에 필요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지닐 수 있고, 교수자는 해당 교과를 학습할 때 학습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요구가 무엇인지 예상할 수 있게 된다. 다음 '수업 중'에서는 교실 안에서 운영되는 학습 단계이다. 교수자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을 제공해 주고, 학습자들은 교수자의 가이드에 따라 또는 독립적으로 그들이 배울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연습 활동, 과제, 프로젝트, 실험 등을 하게 된다. 이때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피드백이나 미니 강의(mini-lectures)를 제공함으로써 과정을 안내해 준다. 또한 '수업 중' 단계에는 활동 준비(Warm-up activity)와 사전에 시청한 강의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수업 후' 단계는 교실 밖에서도 학습자들이 수업 중 받은 명확한 설명과 피드백을 받은 후에 꾸준히 자신의 지식 기술을 심화·적용해 나가는 단계이다. 교수자는 꾸준히 학습자들에게 추가 설명이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어, 그를 통해 학습자들은 보다 더 수준 높은 과제물을 완성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이는 전통적인 교실에서 학습자들이 과제를 한 후에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 이전의 과제물에 대하여 평가를 받게 되는 것과 비교된다.

III. The Necessity of The Content-Based Korean And The Flipped Learning

국내 대학들은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유학생 유치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쟁적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많은 유학생을 수용하려고 노력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대학의 교육 내용도 이문화권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적 의사소통이 바탕이 되는 문화적 맥락을 알려주고 다양한 의사소통 및 교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통해 유학생은 기초 교양능력의 수준을 높여 나갈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대개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이 구어 중심으로 발달한 탓에 대학교의 고등 교육을 수학하기 위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한국문화, 학술, 교양 능력과 그에 대한 이해도가 결여되어 있으며, 에세이 및 보고서 등의 글의 완성도가 미흡하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언어적 측면에서만 교육시킬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습득해야할 내용적 측면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수방식이 필요한데, 이에 적합한 교수 방안으로 내용중심 언어교수법을 제안할 수 있다. Brown(2001)에서도 학문 목적 영어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개념으로 실자료나 정보에 기반을 둔 내용중심교육을 제시하였다[10].

내용중심 교수법은 1986년 Mohan과 Willetts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 언어 교수법은 언어 발달을 위한 도구로서 '내용'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언어 요소를 명시적으로 가르

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내용 이해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언어가 학습되는 것이다. 내용 중심 접근의 시각에서 본다면 효과적인 언어 교수는 모든 교과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내용중심의 언어 수업은 수업 목표에 따라 사회, 역사, 정치, 문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상호작용하는 학습자 집단 수업에서 효율적이다. 더불어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한국적 상식과 교양 지식을 함양할 수 있다. 즉, 내용중심 교수법은 목표어로 구성된 자료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되, 이 자료가 언어 사용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맥락 하에 나타나도록 구조화되어 학습자에게 제시되었을 때 정보 습득과 언어 학습이 동시에 성공적으로 도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심혜령, 2015)[11].

이 같은 내용중심 언어 교수법에 의한 교육 과정은 교과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진정한 언어와 텍스트를 사용하며, 특정 학습자 그룹의 요구에 적합해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12]. 내용중심 교수법 교육과정의 기본 구성은 언어적 형태나 기능, 기술보다는 교과내용에서 이루어지며 이때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은 수학, 과학, 경제, 문화, 비즈니스, 역사 등과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해 학습하는 과정에서 습득된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비디오, 오디오, 시각 도구와 같은 텍스트 자료는 원어민용으로 제작된 것에서 선택되어야 하며, 학습 활동은 의미 있는 메시지 전달과 이해, 그리고 실제적인 언어 사용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교과내용 학습과 활동은 학습자의 언어적, 인지적, 정서적인 요구에 상응해야 함은 물론 그들의 전문적인 요구와 개인적 흥미에도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국내 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용중심 교수법을 기반으로 대학 강의가 이루어질 때는 유의미한 활동까지 이어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실제 국내 대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학습자마다 한국어 능력의 편차가 크고, 특정 교과 내용에 대한 스키마 역시 개개인이, 또는 국적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에 적합한 교과 내용을 정해진 강의 시간 안에 학습하고 학습 활동까지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다보니 학습자들은 교과 내용을 따라가는 데에 급급하고 노출된 언어적 형태나 기능을 습득하고 실제적 언어 사용을 위한 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방안으로 플립러닝 수업이 적합하다고 본다. 내용중심 한국어 수업에 플립러닝의 수업을 적용하게 되면 학습자는 교과내용을 각자 집에서 비디오나 시각 자료들을 통해 학습하고, 개개인이 자신에게 부족한 내용 지식이나 언어적 요소를 스스로 찾아 여유롭게 보충할 수 있게 된다. 즉, 내용 이해와 언어 이해에 대한 요구를 학습자가 직접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실 수업에서는 실제 언어 사용을 활용한 교과 학습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플립러닝을 활용한 내용중심한국어 수업 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Ⅳ. Criteria and Principles of Content-Based Korean Instruction Model Using The Flipped Learning

내용중심한국어 플립러닝 수업 모형을 제시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수업 구성의 기준 및 원리가 될 것이다. 김혜영(2011)에 따르면 Stoller & Grabe (1997)에서는 내용기반으로 한 교과과정을 개발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으로 6T의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13].

첫 번째는 T는 테마 (Themes)의 선정과 여러 테마들 사이의 순서의 결정이다. 주제는 각 단원을 총괄하는 중심 주제로서 학습자들의 요구, 관심, 학습 목표, 프로그램의 기대, 교사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T는 텍스트 (Texts)의 선정이다. 텍스트는 테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글 뿐 아니라 비디오나 오디오 등의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세 번째는 T는 소주제 (Topics)의 선택이다. 소(小)주제는 중심 테마를 구성하는 하부 내용 요소들인데 일례로 세대차이가 중심 테마라면 소(小)주제로 기성세대와 신세대, 고교입시 세대와 평준화 세대, 386세대와 실크세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소(小)주제는 확보된 텍스트에서 추출이 가능하다.

네 번째는 T는 연결고리 (Threads)의 발견이다. 연결고리는 중심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짓지 않고서도 소(小)주제들끼리 서로 맺어줄 수 있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내용 또는 언어 사용상의 공통점 또는 일치점이다. 연결 고리를 잘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중요 내용이나 언어형태를 반복 학습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과제 (Tasks)의 설계이다. 과제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교수 목표를 실현하며 의미와 목적이 분명한 학습·교수 활동으로 자주 반복되는 간단한 과제로부터 수업의 학습 내용을 종합하는 복잡한 기말과제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다.

여섯 번째는 T는 주제와 주제 사이, 과제와 과제 사이의 이행 (Transitions)의 명시화이다. 한 주제나 과제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비약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주제 또는 과제에 대한 준비를 시키는 활동이다.

이상의 내용에 기반으로 수업의 구성 원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중심교수법을 활용한 교수는 주제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습자의 표현 차원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 전용 '시사한국어'라는 교과목의 내용에 대한 이해는 학습자가 뉴스, 신문 기사, 칼럼 등 다양한 매체와 텍스트에서 제시되는 내용을 토대로 한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표현 교육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표현은 발표, 쓰기,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발표는 뉴스나 다큐멘터리 등을 통한 이해 교육은 동시에 발표 능력을 키우는 표현 교육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쓰기 능력의 경우 신문 기사나 칼럼, 사설 등

을 통해 논술적이거나 설명적인 글을 구성하는 틀을 익힐 수 있다. 이것들은 곧 리포트, 논문 및 시험 등과 연관된다. 마지막으로 토론의 경우는 찬반의견이나 가치의 유무 등 쟁점이 되는 시사를 여러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해한 후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학습의 목표는 내용적 목표와 언어적 목표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 즉 수업 중 제시되는 시사적 주제를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적 목표와 이를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습득되어야 할 언어적 목표를 동시에 갖는다. 단순히 텍스트를 듣거나 읽어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탐색하고 재구조하는 과정을 거쳐 발표 시 요구되는 특유의 표현을 선별적으로 익히고 리포트 작성에서 요구되는 설명문이나 논설문의 구조를 익히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는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식화된 글의 구조를 인식할 수 있으며, 다양한 담화, 표지, 문법, 어휘 등을 숙지 할 수 있다. 공기관계에 놓인 문법 및 표현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상의 원리를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 2와 같으며, 내용중심 한국어 수업의 구성 원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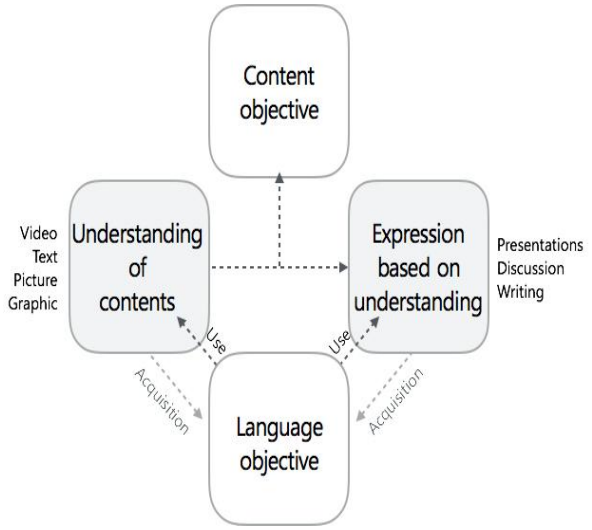

Fig. 2. Principle of composition in content-based Korean class

내용중심의 한국어 수업 목표는 크게 내용적 목표와 언어적 목표를 지닌다. 내용적 목표의 달성은 내용의 이해와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습자의 표현으로 이루어진다.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습득되고, 다시 이를 사용하여 이해하고 표현함으로써 언어적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다. 이때 수업의 모형은 원리에 따라 이해 차원의 수업과 표현 차원의 수업으로 구성된다. 외국인 전용 '시사한국어'라는 과목으로 예를 들면, 이해 차원의 수업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교수자가 강의를 하며 텍스트 자료는 뉴스, 신문 기사, 칼럼 등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표현 차원의 수업에서는 시사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사용하여 의견을 표현하도록 하며 주제에 따라서 토론하기, 발표하기, 에세이쓰기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플립러닝을 활용한 내용중심한국어 수업 모형을 설계할 수 있다.

Ⅴ. Designing the Content-Based Korean Instruction Model Using The Flipped Learning

플립러닝을 활용한 내용중심한국어 수업 모형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학습 단계와 학습 환경, 학습내용, 학습목표로 구분하고 있다.

학습단계는 수업의 과정 즉, 단계를 말하는 것이며, 학습 환경은 학습자가 공부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학습 내용은 수업 전, 중,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학습 방법과 내용 및 활동 등을 보여주고 있으며, 학습 목표는 학습 단계별로 학습자에게 목표가 되어야 하는 습득, 사용, 확장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플립러닝을 활용한 내용중심 한국어의 수업 모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The instruction model of the content based Korean flipped learning

Learning stage / Learning environment	Content of learning	The goal of learning
Pre - class Outside of classroom	Online study using video or application	<Acquisition> 50% Linguistic understanding 50% Content understanding
In - class Inside of classroom	Introduction: Checking the online lecture Present: Present activity Practice: Activity Follow up: Clearing out, Evaluation The role of instructor: Goal, Environment, Activity, Role of peer, Role of learner	<Usage> Express of understanding
After - class Outside of classroom	Assignment - Supplement, Checking, Intensification - Creation, Fusion	<Expansion> Expanding the content what the learner have studied

Fig. 3. The instruction model of the content based Korean flipped learning

수업 전 학습을 통해 기억, 이해가 이루어지게 하고 본 수업의 활동을 통해 습득과 응용, 분석이 이루어지며 나아가 평가와 창조의 단계까지 나가도록 학습자들을 지도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다[14].

첫 번째, '수업 전' 단계는 학습자가 교사로부터 제공된 동영상 및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을 학습하는 단계를 말한다. 수업 형태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교실 환경이 아닌 학습자가 온라인 수업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의 수업은 해당하는 주제에 대한 내용의 이해 및 언어 수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학습자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언어와 내용적인 부분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수업 전' 단계의 목표는 수업 전체 내용의 50% 이해가 목표인데, 이때 그 목표는 언어적인 이해가 50%, 내용적인 이해가 50%로 구분된다.

두 번째, '수업 중' 단계는 학습자와 교사가 직접 만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교실 수업이다. 교실 수업은 '도입-제시-전개-마무리'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입 단계에서는 '수업 전' 단계에서 이해했던 온라인 강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간단한 퀴즈나 복습을 할 수 있다. '제시' 단계에서는 해당 차시에 이루어질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며,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도한다. '전개' 단계에서 본격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활동은 '학습자가 처한 환경, 학습자의 역할, 동료학습자의 역할, 수업의 목표'를 담고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 또한 활동이 이루어질 때 교사는 학습자가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학습자와의 상호작용, 수업 목표로의 도달 등을 잘 살피어 전체 활동을 아우르고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수업 중' 단계에서 학습 목표는 학습자가 활동을 하면서 '수업 전' 단계에서 학습한 언어와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수업 후' 단계는 교실 수업이 끝난 후에 교사가 학습자에게 과제를 부여하여 활동하거나 학습자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확장해 나가는 단계이다. 교사에게 과제를 받은 학습자는 수업 대한 내용을 보충 및 확인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배운 이론, 언어, 활동 등이 바탕이 되어 학습 내용에 대한 심화, 창의, 융합 등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학습자는 이를 통해 '수업 전- 수업 중' 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창의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업 모형을 실제 외국인 유학생 교과목에 적용한다면 언어 활용뿐만 아니라 지식 내용 학습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다. 나아가 학습 단계별 목표가 되는 학습의 이해,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학습자 스스로 창의적 확장까지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하여 보다 능동적인 학습자 주도의 수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때 교사는 수업 전반을 이끌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플립러닝을 활용한 내용중심한국어 수업 모형은 기존 유학생들이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방안이 되며, 학습자의 흥미도와 교육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Ⅵ. Conclusions

본고에서는 최근 국내 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전공이나 교양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유학생이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스키마나 한국어 능력의 편차로 인해 목표 내용을 이해하고 활동까지 연계되는 과정에 미흡함이 있음을 문제제기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학생이 수강해야 하는 교과목에 플립러닝 적용을 제안하였으며, 동시에 언어와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 학습 상황을 고려하여 플립러닝을 활용한 내용중심한국어 수업 모형을 설계한 후 제시하였다.

플립러닝은 단순한 예습을 넘어서 교육 전-중-후 모두를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 플립러닝을 활용한 교육 방안을 실제 내용중심한국어 수업에서 적용한다면 학습자는 교육 내용을 선점하며 수업 전반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 학습자에게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는 동시에 교육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대학에서 일련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일정 수준의 학습 성취도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교수 중심의 수업과 강의식 수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학습자 주도적 선도 교육 모델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수업에서 적용한 사례 연구가 아닌 문제점에 대한 방안으로 수업 모형을 제시하는데 그쳤다는 점이 한계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를 토대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 교과목에서 플립러닝을 활용한 내용중심한국어 수업을 적용한 사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실제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Jong Yeon Lee, Sang Hoon Park, Hae Jin Kang, Sung Youl Park, "An Exploratory Study on Educational Significance and Environment of Flipped Learn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No. 12, pp. 313-323, 2014.

[2] Ji Yeong Lim, "A Study on Development of Chinese Grammar Class Model Based on Flipped Learning : Potential Complement · State Complement · Degree Complement As Examples" The Chinese Education and Research, Vol 22, pp. 151-174, 2015.

[3] Min Kyung Kim, Chang Won Shin, " The Effects of Flipped Classroom on Middle School Learners` English Academic Achievement and Affective Domains"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Vol 64, No 2, pp. 289-314, 2016.

[4] Dong Sup Jung, "A Proposal of Class Design Model of the Spanish Language Class in the College" The Korean Journal of Hispanic Studies, Vol 8, No 1, pp. 127-150, 2015.

[5] Sung Won Um, "A Study on the Model of University Writing Course Using Flipped Learning " Korean Association for Literacy, No. 15, pp. 73-97, 2016.

[6] Gyeong Ae Lee, "A Study on a Writing Instruction Model

Using Flipped Learning for Foreign Students" Journal of Dong-ak Language and Literature, Vol. 72, pp. 61-95, 2017.

[7] Crompton, H. Dunkerly-Bean,J.,& Giannakos, M., Flipping the classroom in higher edu-cation: adesign-based research study to develop a flipped classroom framework, Proceedings of Society for Information Technology & Teacher Education International Conterence, pp. 2763-2766, Chesapeake, Chesapeake, USA, 2014.

[8] Jung Youn Lee, "A Study of a Lesson Plan for Debates Using Flipped Learning" The Language and Culture, Vol. 12, No. 4, pp. 177-209, 2016.

[9] Honeycutt, The Complete Flip It Training Program for Educators, 2014.

[10] Brown, H.D., "Teaching by principle(2thed)" Addison-Wesley Pub Co, 2001.

[11] Hye Ryeong Shim, "Study on the Methods of CBI-Based Subject Matter Curriculums for KSL learners -Focusing on the Science Curriculum" The Association of Korean Education, Vol. 105, pp. 325-347, 2015.

[12] Stryker and Leaver(1997), "Content-based Instruction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Models and Methods, Georgetown University Press, Washington, DC., pp.5-11, 1997.

[13] Hye yeong Kim, "Content Based Language Teaching: A model for bridging with Korean Studies" The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anguage Educ ation, pp. 97-104, Kyun Hee University, Korea, 2011.

[14] Anderson, L. & Krathwohl, D.(Eds.), "A taxonomy for learning, teaching and assessing: A revision of Bloom's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 New York: Longman, 2011.

Authors

Jung Hyun Mun received the M.S. and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rom Pai chai University, Korea, in 2012 and 2016, respectively Division of Future Capability Education, at Pai chai University, Daejeon, Korea, in 2016. She is currently a Assistant Professor in the Division of Future Capability Education, Pai chai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vocabulary education, Korean Culture Education and Content-based education.